



무역의 힘

연결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계 경제

Trade is not a Four-Letter Word

프레드 P. 혹버그 지음 | 최지희 옮김

책 소개

바나나, 자동차, 아이폰, 슈퍼마리오, <왕좌의 게임>...
무역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세계를 바꿔왔는가
전 미국 수출입은행장이 전하는 무역으로 읽는 세계 경제

▶ <파이낸셜타임스> 2020 추천도서

▶ 아마존 정치·사회과학 베스트셀러

겨울에도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계, 저녁이면 <왕좌의 게임>을 정주행하는 세계....., 모두 무역이 있기에 가능한 세계다. 동시에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무역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협력하는 경제가 가져오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역행하는 상황은 왜 발생할까. 트럼프의 막무가내 관세 폭탄의 도화선은 무엇인가.

전 미국 수출입은행장 프레드 P. 혹버그는 무역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쉽게 정치 쟁점화되거나, 반대로 무역수지 그 이상의 현안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역이 우리의 일상 그 자체라는 것을 환기하며, 세계 경제라는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무역이라는 힘에 눈을 뜨게 한다. 자유무역의 역사에서부터 오늘날의 무역 쟁점과 내일의 로드맵까지 노련하게 안내하는 첫 '무역 수업'이다.

바이든이 당선되어도 무역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

보스턴 차 사건에서 트럼프의 NAFTA 폐기까지,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미국 무역사 읽기

선거 때마다 NAFTA가 정치인들의 샌드백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힐러리가 오하이오 행정록의 작은 애플 래치아 마을에서 유세할 당시, '스리잡'을 뛰어야 간신히 먹고살 수 있던 한 53세 남자는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NAFTA 때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죠.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제조업은 거덜 났습니다." 이제는 철강 생산량 비중보다 선거인단 비중이 더 큰 중서부 지역에서 NAFTA를 맹렬히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인은 실업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역협정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 계급이 사는 마을들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 진리로 여겨진다. -75~76쪽

책은 오늘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원인을 되짚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대영 제국, 소련, 일본 등 라이벌과의 대립으로 미국의 무역사를 간략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곧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형성된 세계 경제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저자는 노예제 존폐를 둘러싼 충돌로만 그려져온 남북 전쟁 이면의 뿌리 깊은 무역 내전에 조명을 비춘다. 국가 형성 시기부터 수입 규제로 이득을 본 북부 산업도시와 피해를 입은 남부 농업 지역 간의 반목은 오늘날까지 무대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럽연합이라는 막강한 경제 공동체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서둘러 마련한 NAFTA가 25년 간의 긴 논란 끝에 폐기된 것은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외국의 값싼 인력에 일자리를 빼앗긴 중서부

도시의 선거인단 비중을 고려했을 때, NAFTA를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무역이 쉽게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좌우 할 것 없이 오랫동안 포퓰리즘 샌드백이 되어왔다는 저자의 지적은, 최근 바이든의 불분명한 무역정책에서도 다시금 확인해볼 수 있다.

무역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바나나 가격의 비밀부터 아이폰의 세계 일주, 교육이라는 수출품까지
여섯 가지 품목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무역

바나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의 무역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인에게서 바나나를 빼앗을 진짜 방법은 한 명 이상의 중남미 국가 지도자가 미국이 그들을 벗겨 먹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과 콜롬비아가 무역 갈등이 생겨 서로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가 즉각 감소할 것이다. 마트의 바나나 가격이 19센트에서 슬금슬금 올라 1달러에 가까워지면 몇몇 가정에서 저렴한 대안을 선택하기 시작할 것이다. -185~186쪽

무엇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무역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지극히 일상적인 여섯 가지 품목을 선택했다. 샐러드, 자동차, 바나나, 아이폰, 교육, <왕좌의 게임>이 그것이다. 미국산 로메인 상추 식중독 사태 당시, 미국은 어떻게 샐러드를 계속 먹을 수 있었을까. 무역 덕분이다. 바나나의 가격은 왜 오르지 않는 것일까. 이 역시 무역 덕분이다. ‘저렴한 외국산 스웨터를 샀을 때 쇼핑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무역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들 품목의 여정을 좇으며 이제껏 보지 못했으나 일상에 촘촘하게 기능하고 있던 무역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저렴한 가격과 원활한 수요 충족 등 기본적 혜택과 더불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국제 공급 사슬 또는 가치 사슬이다. 아이폰 제작에 몇 개국이 참여하는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왜 아이폰이 타격을 받게 되는지, 누구나 미국 차로 여기는 쉐보레에 실상 미국 부품은 적게 들어간다는 등의 예를 통해 그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 경제를 각인한다.

이는 서비스무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직접적 수익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교육과 관광에서부터 “세네갈과 오스트레일리아의 10대들이 캐나다 개발자가 만든 프랑스 비디오게임을 하며 서로 겨루는 세상”까지, 저자는 이미 세계 경제는 무역장벽이 기능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무역 규제로 치닫는 보호무역주의는 성공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무역에 관한 편견과 오해를 뒤집는 경제 상식

나는 이발사 오머 씨에게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나는 그에게 이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지만 그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 물론 이 적자 문제는 우리 각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018년 중국으로부터 무역적자 3780억 달러가 발생했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 수 없다.-204쪽

저자는 무역에 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트럼프는 중국을 무역 악당처럼 묘사하고 많은 나라가 다소간 이에 동조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중국의 불공정거래를 비난하기에 앞서, 충분히 여러 나라와 협조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관세 전략으로 상황을 악

화한 미국의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중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아이폰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수출품으로 간주된다는 예를 들어, 양국 간 무역적자는 한 나라의 경제 건정성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지킨 일자리가 17만 개라면 타격을 입은 일자리는 650만이라고 밝히는 등, 보호무역주의에 치밀하게 반문한다.

더불어 저자는 무역이라는 프레임으로 세계를 읽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역이 어떻게 세계 인권, 노동, 환경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무역이 어떻게 평화를 고취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된 경제가 국가 안보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웃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 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는지 등에 대한 답이 담겼다.

왜 지금 무역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승자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무역의 로드맵

사실 무역의 단점들을 솔직하게 기탄없이 다룰수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될 사람은 무역 반대론자나 옹호론자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그 혜택이 내가 이 책을 쓰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수년 동안 쉽게 무역정책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일반인들이 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역에 대한 지식이 더 늘었다고 느끼면서 책을 내려놓는다면 이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들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역을 이용하는 공론가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당신은 소수에게나마 무역 면역력을 키워줄 것이다. -260~261쪽

그러나 이 책은 무역의 순기능과 자유무역에 대한 적극적 옹호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무역의 득과 실에 솔직해질 때에야 보호무역주의 역행을 다시 거슬러, 모두가 공존하는 세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무역으로 인한 패자' 즉, 일자리 문제에 책의 큰 부분을 할애하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저자는 케네디가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조치(TAA,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기반이 약해진 기업과 농민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현실을 비판한다. 이는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에 소극적인 조치를 해오며 '무역이득공유제' 논의는 담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노동 없는 미래'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기술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무역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지역과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다. 저자는 광부에서 코더로 변신한 애팔래치아 광산촌의 사례, 로드아일랜드주의 기업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인 '리얼잡스' 등의 예를 들어 민간과 정부, 개인의 차원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시도들을 제시한다.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만큼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주는 책이다.

저/역자 소개

프레드 P. 흑버그 Fred P. Hochberg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 수출입은행장을 지내며 최전선에서 무역이 해내는 일들과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을 목격했다. 기관 역사상 최장수 은행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뉴스쿨 밀라노 경영·도시정책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하버드 케네디스쿨과 시카고대학교 정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도 몸담았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부청장과 청장 대행을 지낸 바 있다. 또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최초의 여성 설립 회사인 '털리언버넌'을 세운 털리언 버넌이 그의 어머니로, 그녀와 함께 20년 가

까이 회사를 이끌었다. 그 외에도 우드로 윌슨 센터, 뉴욕 시민 예산 위원회, 핀카 인터내셔널, Seedco 등 비영리기관을 통해 공공 정책을 자문하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경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뉴욕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쳤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받았다.

윽킨이 최지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 통역학과를 졸업했다. NH증권, 21세기 한중교류협회, 금융연수원, KDI 정책대학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다양한 기업체와 정부 기관에서 동시통역 및 번역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영어와 중국어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윽킨 책으로는 《하버드 경제학》 《화폐의 몰락》 《금의 귀환》 《마윈, 내가 본 미래》 《중국의 미래》 등이 있다.